

2017년도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심의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공연예술행사지원 일반공모
- 회의일시 : 2017. 3. 27(월) 10:00~18:00, 29(수), 10:00~18: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위원회 회의실

2017년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은 음악, 연극, 전통, 무용 분야 총 180개 단체가 지원했다. 30개 단체는 지난해 선정된 기존사업 단체이며, 150개 단체는 신규로 신청한 사업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했을 때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사업의 적합성과 실행 계획,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인적자원구성, 단체에 대한 신뢰도와 평가, 질적인 콘텐츠 확보, 공연 실행을 통한 시민(관객)들과의 유기적인 공감대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공정한 심의와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심의위원 전체가 우선적으로 공감했다.

지원사업의 범위(신규/기존)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연극(51/9), 전통(30/8), 무용(17/7) 음악(52/6)의 단체가 지원했다.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적합성, 단체의 활동내역, 공연사업 프로세스, 지출의 효율적인 예산 분배 및 확보, 질적인 콘텐츠, 파급 효과, 인적자원 구성, 공익적 문화사업의 요건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100% 반영하고, 기존사업(30건)은 외부평가와 환류평가가 각 50%씩 반영되는 평가로 이루어져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에 대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심의위원 일동은 ‘2017년도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의 심사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차와 2차에 걸쳐 지원신청한 모든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심의위원 간 해당 사업의 문제점 및 장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통해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지원 단체의 적합성을 평가했다.

심의위원 일동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분야를 채점하는 방식으로 통합 점수를 통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여 상당한 심의시간이 걸렸고, 이러한 과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심의절차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보완된 제도로 인한 것이었다.

신규 신청사업(150건)의 경우, 수도권과 지역단체의 균형성과 공정성 재고를 위해 심의위원별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각 단체별로 사업취지의 부적합성, 출연진과 연출진의 과도한 예산배정, 사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사업비 신청과 빈약한 공연콘텐츠, 제시하는 아이디어에 비해 빈약한 인적 자원 구성 및 공연실행의 문제점, 공연지원 사업으로의 공공성이 취약한 사업, 예산계획의 90% 이상을 지원금으로 충당하려는 사업, 일부 기획단체들의 상업적 계획, 지원신청의 부실한 계획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합리적인 예산과 사업계획 수립, 지출의 세부적 계획, 차별화되고 특화된 기획력과 공연 콘텐츠 확보,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으로 지원사업의 적합성이 뛰어난 단체들도 많았다. 사업계획의 타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매우 높으나 지자체 사업예산을 일부 확보해 향후 해당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단체들과 더불어 소외되고 참신한 지원 단체들에게 기회를 넓혀 주자는 의견이 전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기존 지원사업(30건)의 경우 사업계획의 적합성·지속가능성과 지난해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방향, 행사의 특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계획의 적정성, 추진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심의위원 일동은 지속사업도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활동과 역량, 실행계획의 합리성, 예산규모의 적합성을 고려해 그간의 문제점과 장점에 대한 의견들을 토론하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심의위원들은 우수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유지하되 연속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특정 분야 심의위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심층토론 후 개별채점을 통한 종합 점수로 선정하는 방식을 통해 공정성을 유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용분야’는 주관단체가 연구단체로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는 제외하였으며, 지역이나 유사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독창성과 기획의 참신성을 감안했다. ‘음악분야’의 경우 서류의 미비 및 불충분한 계획서 제출, 음악전문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사업 주관단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 단체는 매니지먼트사로 판매 수입(음악행사)이 일정한테도 지원신청을 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예산범위의 타당성, 실행계획의 충실성, 지속적 사업으로써의 가능성, 음악사업의 참신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전통예술분야’는 차별화된 공연콘텐츠와 사업구성이 다소 미약하다는 점과 사업계획서 작성이 일부 단체 중 꼼꼼하지 못한 단체들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전통예술

분야의 지속적인 보급의 필요성, 전통문화를 창의적인 시각으로 현대화시키려는 연희자와 지원 단체들의 노력,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으로 사업계획이 특화된 단체들도 많았으며 전국단위 단체들이 전통문화 보급을 위해 꾸준한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 졌다. ‘연극분야’의 경우 지역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업, 현장의 평가가 매우 높고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수월성을 고려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신규행사에 대한 지원확대도 필요하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위와 같은 평가과정을 통해 세부평가의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졌으며 심의위원들은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교차적인 평가를 통해 지원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들 중 기존사업의 경우 지난해 예산에 비해 비교적 감소된 경우는 신규단체의 증가와 예산계획의 합리성에 따른 지원금 결정이었다. 더불어 예산 배정은 불합리한 부분이 보인 경우는 과감히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향후 지원 단체들이 지양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는 것이 분야 심의위원의 의견이었다.

또한, 심의위원 일동은 2017년도 공연예술행사진원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공연예술행사의 새로운 변화와 시도를 통한 질적인 확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 평가환류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또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되 별도의 사업평거나 예술현장의 평가가 좋지 않았던 공연예술행사는 철저한 개선노력이 없이는 지원을 더욱 까다롭게 해야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원이 결정된 사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내어 매년 지속사업으로 평가되길 기대한다.

2017년 공연예술행사진원 공모사업 심의위원 일동